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 대학과 기업을 하나로..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
-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지원
- 인재가 곧 경쟁력, 우수 학생·교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지원
- 【관련 국정과제】 55-1.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한다.

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여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하여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추가 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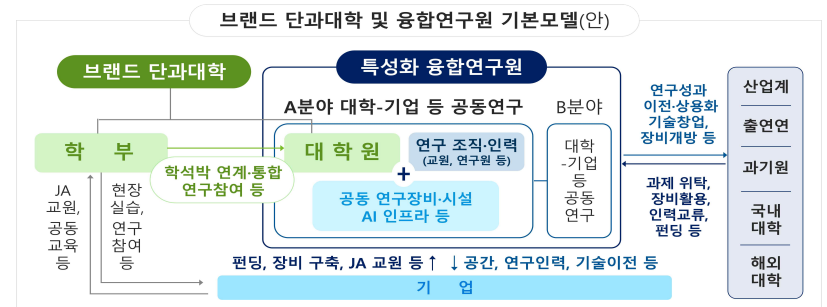


1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거점 육성

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앵커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여,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패키지) 지원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연구 모형(모델)을 실현한다(‘26년 3개교, 총 1,200억 원).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기술원(IST),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하여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 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하여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연 1,500명 내외)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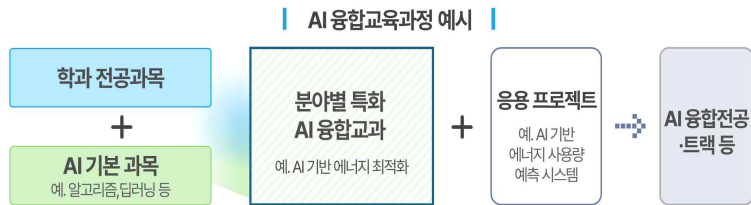
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가칭)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파격적인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② 지역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 육성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뒷받침한다('26년 3개교, 총 300억 원).

먼저,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중심적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 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연 1,500명 내외).



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하여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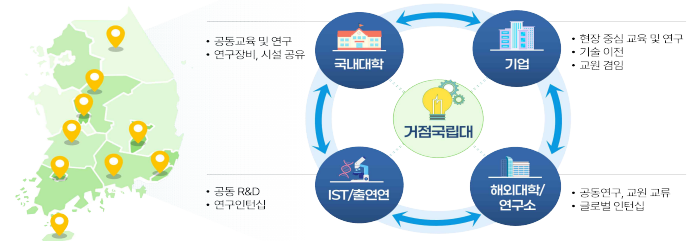
③ 대학 전반의 성장 브릿지 구축 및 동반성장 지원

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하여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26년, 총 5,448억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또한,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하여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장하고, 공동 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④ 국립대학 성과 중심 혁신 지원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 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기업)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30년 약 44백만원)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된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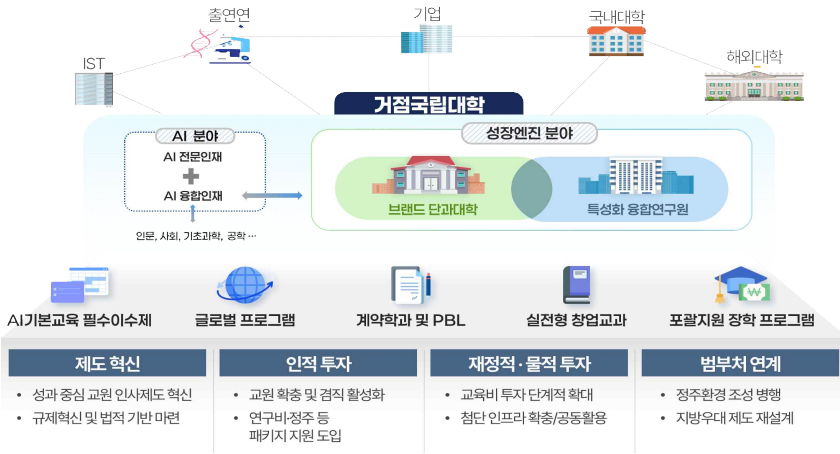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주요 내용
- 2.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관련 Q&A
- 【별첨】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담당 부서 <총괄>	대학지원관 국립대학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 부서 <AI 거점대학>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 부서 <계약학과>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 부서 <공유대학>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붙임1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주요 내용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

	AS-IS	TO-BE
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교당 평균 42명 해외대학 학점교류 참여율 약 2% 특정 학과 중심 AI 교육 장학금 지원 부족, 열악한 실험실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교당 평균 80명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약 10% 이상 SI 기본교육부터 AI 융합교육까지 체계화 포괄 장학금 지원, 최첨단 교육·연구 장비 구축
학생 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교수 개별 연구실에만 소속 전통적 학과단위 교육·연구 낮은 수준의 연구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연구원에 이중 소속되어 다양한 융합연구 참여 실제 기업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연구장학금(200~300만원)
교원(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학과·사업단 중심 운영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 타입어급 우수인재 유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대학 공동 연구소, 우수 연구원 겸직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특성화 교원 트랙) 우수 성과 교원 파격적 패키지 지원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 대학 내 AI 인프라 분산 공동교육과정 운영 중심 공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교원 인사제도 혁신 대학별 AI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관리 공동교육 → 공동연구, 인프라 공유, 창업지원

붙임2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관련 Q&A

Q1. 왜 거점국립대학만 지원하나요?

- A. 이번 방안은 지역 전략산업인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는 '지역 살리기' 정책입니다.
-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거점국립대학에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연구 수행'이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 거점국립대학은 다양한 학과와 교수진 등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 구축된 교육연구 시설, 대학 규모, 권역 내 거점에 소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 대학 중 권역별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투자 확대에 따른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공유대학을 기반으로 지역대학과 자원을 공유하고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한편, 국가중심국립대학과 교원양성대학도 공공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지역 인재 양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앵커(구 라이스) 체계를 통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 산학협력 인재양성 모델을 발굴·지원할 계획입니다.

Q2. 집중 지원을 받을 3개 거점국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 A. 3개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 외에도 전체 거점국립대학이 권역별 교육 거점으로서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25년 대비 교당 약 300억 원 내외 증액)
- 이를 통해 모든 거점국립대학에 최신 교육·연구 기자재를 확충하고, 학생들은 현장 실무 역량을 기르며 미래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기반한 산학일체형 교육(문제해결형 강의(PBL), 현장실습, 부트캠프 등), 인공지능(AI) 기본 교육,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성장엔진 분야를 지원하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인공지능(AI)은 전 분야에 적용·활용되는 공통 기반이자 범용 기술로서, 성장엔진 산업 분야와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분야 간 융복합에 기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두 사업을 함께 지원하여 AI와 성장엔진 분야 융합교육·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AI를 이해·활용할 수 있는 성장엔진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AI 인재가 지역 성장엔진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AI 인재의 지역 정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4. 인공지능(AI) 거점대학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AI 거점대학은 AI 교육과정을 인근 지역대학에 개방하여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AI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심화 교육 및 영재학교·과학고 연계 교육을 통해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와 함께 지역 성장엔진 산업 등과 연계된 AX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기업 재직자도 AI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AI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Q5.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브랜드 단과대학 및 AI 거점대학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엔진·AI 분야 교육·연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융합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학생 지원 프로그램	
브랜드 단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 성장엔진 분야 기업 협업형 프로젝트(PBL) 수행 -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 (대학원생) 성장엔진 분야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참여
	학업 여건	- 등록금·생활비 지원, 기숙사 우선 입사 등 포괄지원 장학 프로그램 - (대학원생) 융합연구원에 이중 소속되어 전문연구원 수준의 연구장학금 제공
인공지능 (AI) 거점대학	교육 프로그램	- AI를 활용하여 실제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참여 - (AI 전공 학생)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된 교육과정 이수 - (비전공 학생) AI 융합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전공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역량 함양
	학업 여건	- AI·AX 분야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지원금 지원 - 학석사 또는 학석박 패스트트랙 연계 장학금, 연구장려금 등 제공
전체 거점 국립대학	취업 지원	- 진로에 맞춘 다양한 기업 협업형 프로젝트 참여 - 지역 앵커기업, 우수기업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확대 - 기업·공공기관 공동 부트캠프, 인턴십 확대
	기본역량 함양	- 해외 대학 교환학생, 해외 기업 인턴십 등 글로벌 프로그램 확대 - 인공지능(AI) 기본 교육 필수 이수

Q6. 방안의 주요 지원 대상이 이공계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문 사회계열은 지원을 안 하나요?

A. 전체 거점국립대학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등을 포괄하는 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인문사회계열에서도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 협력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혁신*, 기업·공공기관 공동 부트캠프,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창업 도전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타 대학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A대 사학과-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 현장 방문, 역사기록물 보존 현황 조사 실시 등 현장 실무자의 특강 및 문제 시나리오 제시를 통한 실무 중심 PBL 교육

- 또한, AI 교육은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교육을 포함하므로 전 분야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장엔진 분야의 교육·연구에 있어서도 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 간 다양한 융복합 교육·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예) 언어 분석을 위한 기계학습, AI 기반 금융 데이터 분석, AI 저작권 등

** (예) 바이오 특성화 시, 생명연구윤리(철학), 바이오 연구개발 관련 법·정책 개발(법학·행정학), 뇌과학-행동분석(사회학), 의료데이터 기반 복지·의료 연구(사회복지, 정책학) 등 융복합 가능

- 한편,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인문사회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3개교, 총 120억 원 지원)을 신설하여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